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15 a.m
		Westminster Hall
		* <u>Please stand</u>
Prelude		Organist
Praise & Worship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7:10,17	Presider
Prayer		Presider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3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Genesis 3:17-19.....	Preside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It' s Your Choice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Song	634(70)	Together
*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Blessing		Congregation
* Hymn	419(47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It's Your Choice
Genesis 3:17-19

Summary of the sermon

We make choices everyday and even every minute in today's fast paced world. Choices are also the one thing we can control, the one thing that is uniquely our own. From the beginning God wired us this way, to be able to make choices, which is known to us as free will. And just like the beginning we have a choice to make. We can choose God or we can choose to sin, be disobedient, and just like the beginning, our choice directly affects our quality of life.

The choice is yours. God created us this way, to have an ability to choose. What this also means is that we can choose to be obedient to God or not as saved people belonging to Him in faith. It is something we must be conscious of and be at the top of our attention every moment.

There is no one else to blame for the choices you make. God makes it clear that each of us is responsible for the choices each of us makes. And so, it is vital that we face ourselves, and blame ourselves first,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ourselves, if we are to see and recognize what God will always reveal to us in prayer; we are to blame.

There are always consequences to your choices. Choose God and be blessed, protected, cared for, be sanctified, witness the kingdom reality, and continue to grow in a deep an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Choose to be disobedient to God, and you enter into a path leading to hurt, confusion, struggle, spiritual blindness, and emptiness.

This is the simply reality of choice given to us by God. A simple reality of choice that can either, turn our lives into fully inheriting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or, leave us outside the truths and promises of God always unable to go further, or gain any ground.

The choice is yours.

Announcement

-Welcome!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Our Discipleship I & II does not meet today.

-Please keep the date Oct, 13th open for we are visiting Yang Hwa Jin(Missionary Cemetery). Please sign up Today!!!

-Please keep Oct. 18 and 20 free for joining our Discipleship Team leading us into evangelism- finding and bringing people to God and to a family.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 Ⅲ, 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에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경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현

선 교 사

강아름 주하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해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터시야),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영모, 추수호,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비전의 하나님”
(God of Vision)

■ 창 12: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렇게 좋고 익숙하고 정다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놀라운 비전이 함께 합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주실 때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창 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라운 축복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 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곧,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세대”에 관한 비전과 소원입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아침 이슬과 같은 다음세대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 성취를 위해 아브람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같대아 우르는 아브람에게 있어서 안전지대였습니다. 그곳에 아브람의 안정된 삶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과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는 아브람이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비전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하는 나쁜 습관이나, 타성에 젖은 삶의 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심어주신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비전을 위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결코 무조건 과거로부터 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은 더욱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교회에 보여주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 새로운 미래로 떠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혹시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 봐야 합니다.

3.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 세였더라. 아브람 시대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떠나기로 했습니 다.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좋으련만 (히 12:8절)에 보시면, 아브람은 “갈 버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분명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민 1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로, 편한 것들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비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꿈과 소망과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임을 잊지 마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인지 과감하게 신앙적 결단을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다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유문건 목사	유문건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정수길 목사	이갑진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시 119:67-68…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십계명) 다 함 께 2부: 105(감사절)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93(447)…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12:10-2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헌금, 선교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다 함 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Sermon	……“순종의 길에 만난 고난”… 박노철 목사
* (Hardship in the Way of Obedience)	
찬 송 Hymn	384(434)…다 함 께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III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여정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대왕	김정희	박수강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9:14 ……인 도 자
찬 송	……20(41)……다 함 께
기 도	……이계홍 집사
찬 송	……90(98) ……다 함 께
성 경	……살전 1: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되는 사람”	설 교 자
* 찬 송	……425(217)……다 함 께
* 축 도	……담 임 목사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황 광 목사
기 도 …… I부: 유순섭 권사, II부: 양영애 권사
성 경 …… 대하 18:28-19:11……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삶의 이유”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입	
1. 스테반회 체육대회 / 6일(토) 오전9시30분 대치미도공원(학여울역 옆)	
2. 남선교회 연합월례회 / 6일(토) 오후4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3. 전 도 /30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치삼성, 도곡래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공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3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루디아 전도회(104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아간팀, 제1, 제2스테반회(한티공원)	
4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레이크,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5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6일(토) 오후 3 5시 70인전도대 토요일노방팀, 안드레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4.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24개월 이하 영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개월-5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6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예배드립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5. 학습세례식 / 10월 학습 세례식이 10월 21일(주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10월 7일(주일)	
문답총정리는 10월 7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0월 14일(주일) 오후 3시 30분 602호 에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통체 → 세례준비반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 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 서	인도자
최상현	4교구	청년2부	자비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6.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7.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8.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0-3688-9123

◆ 장 례

1. 故 송필여 집사(5교구 백동석 집사 모친) / 27일(목) 별세, 29일(토) 발인

위기 의식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 살이 썩고 손톱 밑이 굼아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자다. 오늘의 현실을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위기도 위기려니와 오늘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정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하신 예수 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 백성의 위기는 민주화나 남북통일이 안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음을 시인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